



에너지도 아껴 써야 한다고?

- * 글 : 백나영
- * 그림 : 정경아
- * 출판사 : 리틀씨앤독
- * 정가 : 13,000원
- * 분량 : 104쪽
- * 대상 : 초등 1~2학년

■ 책 소개

종혁이는 바람맨이 되었어요. 바람맨은 교실에서 에어컨 조절 담당이에요. 종혁이는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신이 났어요. 선생님께서 에어컨 리모컨을 주시면서 지구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하긴 했지만요.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이 안 계시는 틈을 타 에어컨을 켰어요. 친구들도 시원하다고 좋아했지요. 다희만 빼고요. 다희는 할머니와 약속을 지켜야 한대요. 에너지를 절약하지 않으면 바닷물이 높아져서 제주도도 잠길지 모르대요. 종혁이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선생님께서는 진짜로 물에 잠기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체육하고 교실에 들어오면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안 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봐요.

키워드

학교생활,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공기 오염, 에너지 절약, 기후 변화

■ 작가 소개 <백나영>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많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 왔어요. 어린이책작가교실을 졸업했고, JY스토리텔링 아카데미에서 동화와 논픽션을 쓰고 있어요. 제4회 생태문학공모전 수상, 2021년 KB창작동화제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지은 책으로는 『철도로 보는 세계의 문화』와 『또박또박 말할래』가 있어요. 진솔한 이야기꾼이 되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 주요 독후활동

에너지도 아껴 써야 한다고?	독서 전 활동	제목, 표지 살피기
	독서 중 활동	내용 알아보기
	독서 후 활동	① 바람을 지배하는 자 ② 바람에 휘둘리는 자 ③ 27.5도와 방귀 이불 ④ 바람맨, 출동!



독서 전 제목, 표지 살피기

※ 다음 책의 표지를 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표지에 있는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 봅시다.

⇒

2. 제목을 봤을 때 어떤 이야기일 것 같나요?

⇒

3. 전기 등의 에너지를 쓰면서 아껴 써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 다음 책의 뒤표지를 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에너지 절약과 지구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종혁이는 더울 때 에어컨을 켜서 반을 시원하게 해 주는 바람맨 역할을 맡았어요.

선생님은 에어컨 리모컨을 종혁이에게 건네며 지구를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에어컨을 켜는 것과 지구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알쏭달쏭해요.

게다가 친구들이 덥다고 해서 에어컨을 켜더니 다른 친구는 춥다고 꺼 달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종혁이는 바람맨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에너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봐요.

1. 밑줄 친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

.....

.....

.....

2. 내가 만약 반에서 종혁이와 같은 바람맨 역할을 맡았다면 어땠을지 기분을 말해 보고, 종혁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생각해 봅시다.

.....

.....

.....

.....



독서 중 내용 알아보기

※ 다음 제목과 알맞은 그림을 연결하세요.

1. 바람을 지배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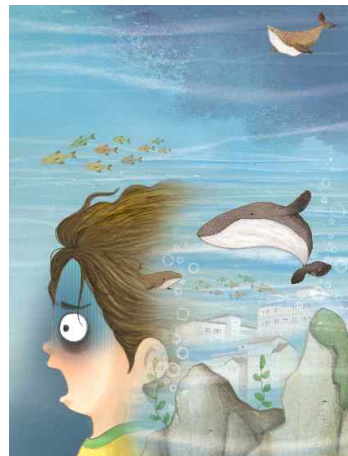
2. 바람에 휘둘리는 자



3. 27.5도와 방귀 이불



4. 바람맨, 출동!



※ 이야기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과 기억에 남는 친구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유도 각각 이야기해 봅시다.

인상 깊었던 내용과 그 이유	
기억에 남는 이야기 속 친구와 그 이유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바람을 지배하는 자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러분 모두 교실의 주인이에요. 멋진 우리 반을 만들어 봐요!”

새로 맡은 1인 1역에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종혁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화장실에 가는 것도 아니고 복도로 뛰어나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선생님께 에어컨 리모컨을 받는 일이었어요.

종혁이는 손바닥만 한 리모컨을 손에 넣자 아주 큰 힘을 가진 것 같았어요. 콧노래를 부르며 어깨춤을 추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선생님이 말했어요.

“종혁아, 지구를 부탁한다.”

생각지 못한 말에 종혁이는 흠칫 놀랐어요. 단지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맨일 뿐인데 지구를 부탁한다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머뭇거렸어요.

“지구가 아프거든. 네 손으로 지구를 지킬 수 있단다.”

선생님이 종혁이가 쥐고 있는 리모컨을 가리켰어요. 종혁이는 기분이 묘했어요. 대답을 하는 등마는 등 하며 서둘러 자리에 앉았어요.

1. 종혁이가 쉬는 시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

2.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바람맨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

3. 선생님이 밀줄 친 문장처럼 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4. 우리 반에 1인 1역을 정한다면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고, 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지 그 이유와 함께 말해 봅시다.

우리 반 1인 1역	
내가 맡고 싶은 1인 1역과 그 이유	역할 : 이유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바람에 휘둘리는 자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이들이 제자리에 앉았고 수업이 시작되려던 참이었어요. 민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 더워요. 바람맨한테 에어컨 켜 달라고 해도 돼요?”
 선생님이 종혁이를 봤어요. 종혁이는 민규를 봤고요. 오늘은 반팔을 입었는데 왜 벌써부터 덥다고 그러는 걸까요. 종혁이는 당황해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모두가 바람맨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결까, 말까, 결까, 말까…….’
 속으로 망설일 때였어요.
 “저도 더워요. 바람맨, 출동해라, 출동!”
 누군가의 말에 아이들이 합창하듯 출동을 외쳤어요. 결국 종혁이는 리모컨을 눌렀어요. 차가운 바람이 솔솔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선생님, 추워요. 바람맨한테 에어컨 꺼 달라고 해도 돼요?”
 이번엔 다희였어요. 에어컨 바로 밑이라 시원할 것 같은데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민규는 아직 안 된다며 반대했고요. 저마다 춥다거나 덥다며 말이 달랐어요.
 선생님이 인상을 썼어요. 종혁이도 얼굴을 찌푸렸지요. 아이들의 말을 들을수록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정말이지 이럴 줄은 몰랐어요. 단지 에어컨을 켜고 싶어서 바람맨을 한 거였으니까요. 종혁이는 바람을 일으켜야 할지, 멈추게 해야 할지 헷갈렸어요.

1. 종혁이는 왜 바람맨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종혁이는 왜 바람을 일으켜야 할지, 멈추게 해야 할지 헷갈렸을까요?

⇒

3. 위 글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종혁이라면 어떤 마음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해 봅시다.

종혁이었다면 내 마음은?	
종혁이었다면 내 행동은?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27.5도와 방귀 이불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선생님은 힘들어하는 종혁이에게 규칙이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에어컨을 언제 켜고 끌 것인지 정하면, 진짜 바람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요.

(중략)

“그럼 몇 도에서 켜면 돼요? 지금 켜면 좋겠는데…….”

종혁이가 선생님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어요. 선생님이 에어컨의 온도 조절기를 보며 말했어요.

“학교에서는 보통 27도에서 켜곤 해요. 지금이 딱 그래요.”

종혁이가 기다렸다는 듯 짹짹 대답했어요.

“그러면 27도에서 켜게요.”

규칙을 정하니 종혁이는 한결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아이들 말에 휘둘리지 않을 테니까요.

1. 학교에서는 에어컨을 보통 언제 켜나요?

⇒

2. 위 글에서처럼 어떤 일에 규칙을 정하면 좋은 이유를 말해 봅시다.

⇒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선생님! 에너지랑 지구랑 무슨 사이인데요?”

종혁이의 질문에 선생님이 칠판에 동그랗게 지구를 그렸어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나와요. 이산화탄소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을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지구가 더워지겠네요?”

누군가의 말에 선생님이 지구 주위로 동그란 테두리를 그렸어요.

“맞아요. 이산화탄소가 두꺼운 이불이 되어 지구를 덮어 버리는 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몇몇 아이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이불이 두꺼워져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요!”

“그래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 지구의 기온이 점점 올라갈 거예요. 이것을 지구 온난화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기체가 이산화탄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소가 방귀를 뀌 때 나오는 메탄가스라는 기체도 있어요.”

3.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이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을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

4. 지구의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봅시다. 책 77~79쪽의 내용을 읽고 참고해서 써도 좋습니다.

⇒

.....

.....

.....

.....

.....

.....

.....

.....

.....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바람맨, 출동!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바람맨은 우리 반 에너지 반장일 뿐이에요. 지구는 다 같이 지키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렵답니다.”
선생님의 말에 종혁이는 차츰 진정이 되었어요. 그보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다희를
한번 쳐다보고는 슬쩍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체육 한 다음에요, 27.5도가 안 돼도요……, 30분 동안 에어컨 켜는 규칙을 만들면 안
될까요? 으음……, 체육을 하고 나면 더 덥고 저희도 너무 더우면 아프단 말이에요.”

울고 난 뒤라 걸걸한 목소리였어요. 말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부탁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는지
선생님이 크게 웃었어요.

“찬성이요!”

뜻밖에도 다희가 외쳤어요. 뒤이어 여러 아이들이 종혁이 말이 맞다며 좋아했어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지구를 위한다고 꾀통더위에 무작정 참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겠죠. 지구도 지키고 우리도 지킬 수 있게 말이죠.”

1. 선생님께서 지구는 다 같이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혼자서 지키기는 어렵다고요. 왜 그런지 자
신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

2. 우리 반에도 에어컨을 켤 때 규칙이 있나요? 온도가 높아서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체
감 온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고, 온도는 높지 않은데 비가 와서 습도 때문에 에어컨을 켜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위 글에서 말한 것보다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해 봅시다. 희망 온도는 몇 도로 설정
하는 게 좋을지도 상의하고, 실외 활동을 하고 들어와서 덥다면 잠깐 에어컨을 켤 수 있다는 규칙
등을 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 반만의 규칙을 서로 상의해서 만들어 봅시다.

에어컨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하자	
언제 켤까?	
어떻게 켤까?	
예외 상황	



독서 후 토론&논술_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

※ (1~2) 다음 글을 읽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5월인데도 여름처럼 덥잖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계절에 맞지 않은 날이 잦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렸다는 듯 다희가 번쩍 손을 들었어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해요! 제주도에 계신 할머니가 그랬어요. 날씨가 이상해서 바다가 점점 높아진다고요. 할머니 집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다희가 말끝을 흐리며 걱정했어요. 그제야 종혁이는 이제껏 다희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섬이 없어진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이 녹기 때문이에요. 잘 느낄 수 없지만 매년 바다의 높이가 높아지고 있대요. 실제로 이미 잠겨 버린 섬도 있고요.”

선생님의 설명에 종혁이는 깜짝 놀랐어요. 다희 말이 사실인 거잖아요.

‘에너지,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 잠겨 버린 섬…….’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 이제야 ‘지구를 부탁한다.’는 선생님 말을 알 것 같았어요.

1. 밑줄 친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

2.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이유

3.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약 방법을 생각하고 서로 생각한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